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제1차 모의평가 문제지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	--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필적 확인란 문구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쓰고, 또 수험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될 때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저는 여러분께 ‘품사는 단어마다 하나로 정해져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답을 찾아본 결과를 발표하려 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이 두 문장을 보시죠.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와 ‘나도 그 사람만큼 땀 수 있다.’입니다. 두 문장의 ‘만큼’은 소리도 모양도 같습니다. 그런데 앞의 ‘만큼’은 관형어 ‘참을’의 꾸밈을 받고, 뒤의 ‘만큼’은 체언 ‘사람’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앞의 것은 의존 명사로, 뒤의 것은 조사로 쓰인 것이지요. (잠시 멈추었다가) 이처럼 한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쓰이는 현상을 ‘품사의 통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펴 보이며) 예전의 전통 문법에서는 이를 한 품사가 본래의 모양을 유지한 채 다른 품사로 ‘몸바꿈’하는 것, 곧 품사의 전성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국어사전들은 같은 표제어 아래 두 품사를 함께 제시하거나, 표제어를 나누되 번호를 매겨 같은 단어임을 드러냅니다. 제가 참고한 문법서는 사전의 처리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흥미로웠습니다. 전성으로 처리하려면 어느 품사가 본래의 것인지, 즉 으뜸이 되는 품사를 먼저 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고, 한 품사에서 다른 품사로 바뀌는 절차를 형태론적으로 설명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두 품사의 기능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고 보는 것이지요.

(화면을 넘기며) 통용의 유형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이지적이다.’의 ‘이지적’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한 명사이지만, ‘그는 이지적 인간이다.’의 ‘이지적’은 뒤의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입니다. 접미사 ‘-적’이 붙은 말은 조사가 붙으면 명사로, 홀로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로 처리되는 것이지요. 또 ‘그의 평생이 행복했다.’의 ‘평생’은 명사이지만, ‘그런 이야기는 평생 처음 듣는다.’의 ‘평생’은 용언을 꾸미는 부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반대 방향도 있다는 점인데, 흔히 부사로 쓰이는 ‘모두’나 ‘서로’가 ‘모두가’, ‘서로를’처럼 격 조사를 취하면 명사로 쓰입니다. 문법서에서는 이런 경우를 ‘명사와 부사의 통용’이 아니라 ‘부사와 명사의 통용’이라고 부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쪽 쓰임이 먼저인지에 무게를 둔 명칭이지요.

(청중을 둘러보며) 그런데 여러분, 품사가 둘이라면 단어도 둘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크다.’의 ‘크다’와 ‘아이들이 크다.’의 ‘크다’는 각각 형용사와 동사인데, 상태를 나타내느냐 변화를 나타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크다’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때 동사로 쓰인 ‘크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용사와 구별됩니다. 결국 품사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단어의 모양이 아니라 그 단어가 문장에서 하는 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듣고 여러분이 쓴 글에서 품사가 통용되는 단어를 하나씩 찾아 보내 주

시면, 다음 시간에 함께 분류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표 순서를 미리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② 청중이 지난 시간에 제기한 질문을 소개하며 발표의 화제를 도입하고 있다.
- ③ 청중이 가질 법한 의문을 질문의 형식으로 던진 뒤 예를 들어 그 의문에 답하고 있다.
- ④ 참고한 문법서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상반된 두 처리 방식을 소개한 뒤 각 방식이 지닌 한계를 모두 지적하고 있다.

2. 다음은 학생이 발표를 준비하며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이 지난 시간의 질문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므로, 그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하며 발표를 시작해야지.
- ② 같은 형태의 단어가 서로 다른 품사로 쓰인 문장 쌍을 화면으로 보여 주며 설명해야지.
- ③ 통용 현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임을 몸짓으로도 드러내야지.
- ④ 통용의 유형을 소개할 때, 명칭에 담긴 순서의 의미까지 짚어 주어야지.
- ⑤ 청중이 자신의 글에서 찾은 통용 사례를 발표 도중에 함께 분류해 보는 활동을 해야지.

3.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찾아 보낸 사례이다.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너만큼 / 노력한 만큼
- ㉡ 평생 처음 듣는 이야기 / 그의 평생이 행복했다.
- ㉢ 달이 밝다. / 날이 밝는다.
- ㉣ 서로 돕다. / 서로를 믿다.
- ㉤ 보다 나은 / 나보다

- ① ㉠에서 ‘만큼’의 품사는 그 앞에 체언이 오느냐 관형어가 오느냐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겠군.
- ② ㉡에서 ‘평생’은 용언을 꾸미면 부사로, 격 조사와 결합하면 명사로 쓰인 것이겠군.
- ③ ㉢에서 ‘밝는다’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하였으므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로 쓰인 것이겠군.
- ④ ㉣에서 ‘서로를’는 격 조사를 취한 명사이므로, 발표에 따르면 ㉠은 ‘명사와 부사의 통용’이라고 부르는 것이 온당하겠군.
- ⑤ ㉤에서 ‘보다 나은’의 ‘보다’는 용언을 꾸미는 부사로, ‘나보다’의 ‘보다’는 체언 뒤에 붙은 조사로 쓰인 것이겠군.

[4~6] 다음은 '나눔 장터'를 준비하는 학생회 학생들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학년 말에 학생회 주관으로 '나눔 장터'를 열기로 했잖아. 홍보도 꽤 했고 취지도 좋아서 많이들 참여할 줄 알았는데, 학생회실에 가 보니 들어온 물품이 세 점뿐이더라. 장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해 보자.

학생 2: 아직 학년 말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세 점은 너무 적다. 우리 반에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취지에는 다들 공감하면서 막상 무엇을 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친구가 많았어.

학생 3: 대가 없이 내놓는 게 내키지 않아서일 수도 있잖아. 물품마다 적은 금액을 매겨서 사고팔게 하면 어떨까? 참여할 이유가 생길 것 같은데.

학생 4: 글썄, 장터의 취지는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쓰이는 데 있잖아. 값을 매기면 그 취지와 어긋날 것 같아.

학생 3: 듣고 보니 그렇네. 나눔 장터는 가진 것을 나누는 자리지 사고파는 자리가 아니지. 내가 너무 서둘러 의견을 낸 것 같아.

학생 1: 그러면 낼 수 있는 물품을 교복과 체육복으로 좁히면 어떨까? 무엇을 골라야 할지 고민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

학생 2: 좋아. 크기가 제각각인 신발은 보관이 어렵고, 학용품은 종류가 많아 분류하는 데 품이 많이 들 거야. 이번에는 교복과 체육복으로 한정하는 게 여러모로 낫겠어.

학생 4: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도 부탁드려 보면 어떨까? 졸업하는 선배들이 교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 말아야.

학생 3: 좋은 생각이야! 졸업생들의 교복이 들어오면 물품의 양도 늘고 치수도 다양해져서, 고르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걸.

학생 1: 그럼 다음 대의위원회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안전으로 올릴게. 통과되면 선생님들께 드릴 협조 요청서를 함께 만들자.

학생 2: 그런데 한 가지 더 걸려. 참여가 저조한 건 남이 입던 옷을 입는 게 꺼려져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학생 1: 그렇겠다. 세탁이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없는 옷은 꺼림칙할 수 있지. 그럼 스팀 소독기를 새로 사자고 안전에 넣을까? 동의하지?

학생 4: 방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싸. 위생에 대한 걱정은 풀어야겠지만, 한 가지 물품에 큰돈을 쓰는 건 마음에 걸려. 새로 사기보다 가정 실습실에 있는 의류 관리기를 빌려 쓰면 어떨까?

학생 3: 그래, 가정 선생님께 부탁드려 보자. 허락해 주시면 장터 전에 학생회가 모여서 들어온 옷들을 소독하면 되겠어.

학생 1: 이대로 정해진다면 물품을 고르는 부담은 줄고, 선배들의 참여로 물품도 다양해질 것 같아. 오늘 나온 내용을 정리해서 대의위원회 안전을 준비할게.

학생 2: 고마워. 나는 대의위원회가 끝나면 결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홍보 포스터를 만들게.

4. 위 대화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 1은 대화를 시작하며 문제의 원인을 단정적으로 제시한 뒤 그 원인을 없앨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 ② 학생 3은 학생 4의 반론을 받아들여 자신의 제안을 거두면서, 장터의 취지를 다시 확인하고 있다.
- ③ 학생 2는 학생 1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그 제안이 지닌 한계를 근거로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학생 4는 학생 1의 제안이 지닌 문제를 지적할 뿐, 그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⑤ 학생 1은 대화를 마무리하며 참여자 각자가 맡을 역할을 나누어 정해 주고 있다.

5. <보기>는 위 대화를 문제 해결의 절차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위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문제 상황 인식] → [대안 탐색과 도출] → [대안의 적절성 검토] → [실행 방안 수립 및 예상 효과 제시]

- ① '문제 상황 인식'에서 학생 2는 반 친구들과 나눔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학생 1이 제시한 문제의 원인을 반박하고 있다.
- ② '대안 탐색과 도출'에서 학생 1은 물품의 범위를 한정하는 안을 내놓으며 그 안이 덜어 줄 부담을 언급하고 있다.
- ③ '대안의 적절성 검토'에서 학생 4는 장터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학생 3이 낸 안을 평가하고 있다.
- ④ '대안의 적절성 검토'에서 학생 4는 비용을 고려하여, 학교에 이미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학생 1의 안을 수정하고 있다.
- ⑤ '실행 방안 수립 및 예상 효과 제시'에서 학생 1은 결정될 내용에 따른 기대 효과를 언급하며 자신이 이후에 할 일을 밝히고 있다.

6. 다음은 대화 이후 학생 2가 홍보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활용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학생회 설문 조사 결과 (1·2학년 200명, 복수 응답)

- 나눔 장터에 물품을 내지 않은 이유
 - 무엇을 내야 할지 몰라서 41% / 남이 쓰던 물건이 비위생적일 것 같아서 33% / 내놓을 물건이 없어서 18% / 기타 8%
- 나눔 장터에서 얻고 싶은 물품
 - 교복 46% / 체육복 29% / 참고서 17% / 기타 8%

[자료 2] 신문 기사

○○시 교육청은 올해도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기 중 체형이 바뀌어 교복을 다시 사는 학생이 적지 않아, 가정의 부담은 여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관내 한 고등학교는 졸업생이 기증한 교복을 세탁·소독한 뒤 재학생에게 나누는 행사를 열었고, 재학생 120여 명이 참여해 교복을 받아 갔다.

[자료 3] 대의원회 결정 사항 메모

- 장터 물품은 교복과 체육복으로 한정
- 3학년 담임 선생님들께 졸업 예정자 기증 안내 협조 요청
- 가정 실습실 의류 관리기 사용 허락 받음 → 장터 전 학생회가 전 물품 소독

- ① [자료 1]에서 물품을 내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응답과 [자료 3]을 고려하여, 낼 물품이 교복과 체육복이라는 점을 포스터 상단에 크게 제시해야겠어.
 - ② [자료 1]에서 두 번째로 많이 꼽힌 이유와 [자료 3]을 고려하여, 들어온 옷은 모두 소독한 뒤 나눈다는 점을 밝혀 위생에 대한 걱정을 덜어 주어야겠어.
 - ③ [자료 2]를 활용하여, 학기 중 체형이 바뀌어 교복을 다시 사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을 장터의 의의로 제시해야겠어.
 - ④ [자료 1]의 ‘언고 싶은 물품’ 응답과 [자료 3]을 함께 활용하여, 재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물품이 장터에 나온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 ⑤ [자료 3]을 활용하여, 3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 직접 교복을 기증해 주신다는 점을 알려 장터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겠어.
7.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부정문은 서술어 앞에 부정 부사 ‘안(아니)’, ‘못’을 쓰는 짧은 부정문과 ‘-지 않다(아니하다)’, ‘-지 못하다’를 쓰는 긴 부정문으로 나뉜다. 서술어가 합성어나 파생어이면 대체로 짧은 부정문을 만들기 어렵지만, 보조적 연결 어미를 매개로 한 합성 동사나 사동사·피동사는 제약 없이 짧은 부정문을 만든다. 또한 ‘공부하다’처럼 체언과 ‘-하다’가 분리될 수 있는 동사는 그 사이에 ‘안’을 넣어 짧은 부정문을 만들 수 있다.

부정문은 부정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때 긴 부정문의 ‘-지’ 뒤에 보조사 ‘는’을 결합하면 부정이 미치는 범위가 한정되어 중의성이 해소된다. 한편 ‘못’ 부정문은 주체의 능력이나 외부의 원인 때문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므로 원칙적으로 형용사에는 쓰이지 않지만, ‘-지 못하다’는 말하는 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낼 때 형용사와도 쓰일 수 있다.

[자료]

- ㄱ. 언니는 그 소식을 안 들었다.
- ㄴ. 나는 오늘 운동을 안 했다.
- ㄷ. 회원이 다 오지는 않았다.
- ㄹ. 그 방은 넉넉하지 못하다.
- ㅁ.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린다.

- ① ㄱ의 서술어를 ‘본받다’로 바꾸면, ㄱ과 같은 방식의 부정문을 만들기 어렵겠군.
- ② ㄴ은 파생어인 ‘운동하다’의 체언과 ‘-하다’ 사이에 ‘안’을 넣어 짧은 부정문을 만든 것이겠군.

- ③ ㄷ의 ‘오지는’을 ‘오지’로 바꾸면, 회원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뜻으로만 해석되었군.
- ④ ㄹ의 ‘-지 못하다’는 방의 크기가 말하는 이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겠군.
- ⑤ ㅁ의 ‘들리다’는 파생어이지만 피동사이므로 짧은 부정문으로 쓰일 수 있겠군.

8.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중세 국어의 사동사는 주로 용언의 어근에 사동 접미사 ‘-이-, -히-, -기-, -오-/우-, -ㅣ-’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이때 ‘ㄷ’로 끝나는 어근에 ‘-우-’가 결합하면 어근의 ‘ㄷ’은 앞 음절의 중성으로 표기되었다. 그런데 이들 접미사 가운데에는 피동사나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와 형태가 같은 것이 있어서, 형태만으로는 그 기능을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파생어가 쓰인 문맥에서 주어가 행위를 직접 하는지, 남에게 하게 하는지, 당하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

[자료]

- ① 사해를 년글 주리여 ㅁ르매 빙 업거늘 얼우시고 ㅅ 노기시니
[사해를 남을 주겠느냐? 강에 배가 없거늘 (하늘이 강을) 얼리시고 또 녹이셨으니.]
- ② 삼한을 ㄴ물 주리여 바래래 빙 업거늘 ㄴ토시고 ㅅ 기피시니
[삼한을 남을 주겠느냐? 바다에 배가 없거늘 (바다를) 얹게 하시고 또 깊게 하셨으니.]
- ③ 석벽에 ㅁ를 올리샤 도즈굴 다 자브시니
[석벽에 말을 올리시어 도적을 다 잡으시니]
- ④ ㅎ불샤 물리 조치샤 모딘 도즈굴 자브시니이다
[혼자 물러나 쫓기시어 모진 도적을 잡으셨습니다.]
- ⑤ 모딘 ㅁ를 일우리잇가
[모진 피를 이루겠습니까?]
- 「용비어천가」에서 -

- ① ①의 ‘얼우시고’와 ⑤의 ‘일우리잇가’에는 모두 ‘ㄷ’로 끝나는 어근에 ‘-우-’가 결합한 사동사가 쓰였군.
- ② ①의 ‘노기시니’와 ⑥의 ‘기피시니’는 각각 형용사 어근과 동사 어근에 같은 형태의 사동 접미사가 결합한 것이군.
- ③ ⑥의 ‘너토시고’는 ①의 ‘얼우시고’와 접미사의 형태는 다르지만, 접미사가 하는 기능은 같군.
- ④ ③의 ‘올리샤’와 ④의 ‘조치샤’는 접미사의 형태가 같지만, 문맥상 주어가 남에게 행위를 하게 하는지 행위를 당하는지에서 차이가 있군.
- ⑤ ④의 ‘물리’는 사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와 형태가 같은 접미사가 결합하여 부사로 쓰인 것이군.

9. <보기>를 참고하여 ㄱ~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관형절을 안은문장은 관형절과 그 수식을 받는 명사의 관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관형절 속의 한 성분이 생략되고 그 성분이 수식을 받는 명사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생략된 성분은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 다양하다. 다음으로 관형절에 생략된 성분이 없고, 관형절의 내용이 수식을 받는 명사의 내용 자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가운데 ‘-다는’과 같은 형태로 실현되는 관형절은 ‘소식, 주장, 소문’처럼 말이나 생각의 내용을 담는 명사를 꾸밀 수 있지만, ‘일, 사건, 경험’ 등을 꾸밀 때에는 ‘-(으)ㄴ, -는’ 형태로만 실현된다. 마지막으로 ‘대신, 다음’ 등의 특수한 명사와 어울려 앞뒤의 절을 이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특수한 명사에 따라 두 절의 의미 관계가 달라진다.

- ㄱ. 내가 어제 책을 산 서점은 문을 닫았다.
 ㄴ. 그가 합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ㄷ. 형이 동생을 도운 일이 알려졌다.
 ㄹ. 비가 그친 다음에 우리는 출발했다.
 ㅁ. 우리가 기다리던 소식이 마침내 왔다.

- ① ㄱ의 관형절에서 생략된 성분은 부사어로, 수식을 받는 명사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겠군.
 ② ㄴ과 ㅁ은 수식을 받는 명사가 같지만, ㄴ의 관형절에는 생략된 성분이 없고 ㅁ의 관형절에는 생략된 목적어가 있겠군.
 ③ ㄷ의 ‘다음에’를 ‘대신에’로 바꾸면 앞뒤 절의 의미 관계가 달라지겠군.
 ④ ㄷ의 관형절은 ‘일’의 내용 자체를 나타내므로, ‘형이 동생을 도왔다는 일’로 바꾸어 써도 자연스럽겠군.
 ⑤ ㄱ과 ㅁ의 관형절에서는 모두 생략된 성분이 수식을 받는 명사와 같은 대상을 가리키겠군.
10.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접미사는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의 범위에 따라 규칙성의 정도가 다르다. ‘지붕’의 ‘-옹’처럼 특정한 어근에만 붙는 접미사는 생산성이 없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데 거의 쓰이지 않고, ‘높이’의 ‘-이’처럼 여러 어근에 붙는 접미사는 생산성을 띤다. 한글 맞춤법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여 접미사가 붙어 만들어진 말의 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탐구 대상] 거름(비료), 마개, 꼬락서니(‘꼴’ 이외의 말에는 붙지 않는 ‘-악서니’가 결합), 살살이, 마중

- ① ‘거름’은 어간 ‘결-’에 ‘-음’이 붙었지만 어간의 뜻과 떨어졌으므로, 제19항의 ‘다만’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군.
 ② ‘마개’는 ‘막-’에 ‘-애’가 붙어 품사가 바뀐 말로, 제19항 [붙임]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군.
 ③ ‘꼬락서니’는 명사 ‘꼴’에 특정한 어근에만 붙는 접미사가 결합한 말이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은 그 접미사의 낮은 생산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군.
 ④ ‘살살이’는 명사 뒤에 ‘-이’가 붙어 부사가 된 말이므로, 제20항에 따라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군.
 ⑤ ‘마중’은 ‘맞-’에 ‘-옹’이 붙은 말로, ‘-옹’이 ‘지붕’의 ‘-옹’처럼 생산성을 띤 접미사이기 때문에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군.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클래식 음악 연주에서 ‘진정한 연주’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20세기 후반 ‘역사적 연주’ 운동과 함께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운동은 작곡 당시의 악기와 조율, 연주 관습을 되살려 연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령 바로크 시대의 작품은 오늘날보다 낮은 음높이로 조율한 거트현의 현악기로, 비브라토를 절제하며 연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연주가 작품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직관에 기대고 있지만, 무엇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철학자 키빙은 연주의 진정성이 서로 다른 몇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보았다. 작곡가가 의도한 바에 충실한 연주, 작곡 당시의 청중이 들었을 소리를 재현한 연주, 당시의 연주 관행을 따른 연주는 각각 다른 기준에 따른 진정성이다. 이 기준들은 대개 함께 충족된다고 여겨지지만 서로 어긋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작곡가가 당대 악기의 한계를 불만스러워하며 더 큰

음량을 원했다는 기록이 있다면, 당대의 악기를 쓰는 것은 소리의 진정성은 높이고 의도의 진정성은 낮출 수 있다. 키비는 여기에 연주자 자신의 해석과 개성을 진실하게 드러내는 ‘개인적 진정성’을 더하였다. 앞의 세 가지가 연주를 과거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라면, 개인적 진정성은 연주를 연주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연주는 작품의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 성취이므로, 개인적 진정성은 다른 진정성이 일부 희생되더라도 추구될 가치가 있다.

음악학자 타루스킨은 역사적 연주 운동의 전체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운동이 내세운 ‘역사적’ 소리가 실제로는 과거를 재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역사적 연주자들이 선호한 빠르고 고른 템포, 절제된 표현, 투명한 음색은 오히려 낭만적 주관성을 배격하던 20세기 모더니즘의 미적 취향과 닮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과거의 소리라기보다 현대의 소리이며, 바로 그 현대성 때문에 동시대 청중에게 생생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타루스킨에게 문제는 그러한 연주가 현대적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현대적 선택을 역사적 권위로 포장하여 다른 해석을 ‘비진정한’ 것으로 배제하는 태도였다. 그에게 어떤 연주가 과거의 방식을 따랐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그 연주를 높이 평가할 근거가 되지 못하였다.

한편 기록이 남지 않은 부분을 연주자가 채워야 한다는 점은 두 입장 모두가 인정한다. 악보는 음의 높이와 길이를 비교적 정확히 지시하지만, 음색이나 미세한 템포의 변화, 장식음의 처리 등은 연주자의 판단에 맡긴다. 역사적 연주를 지향하는 연주자에게 이 공백은 당대 문헌을 연구하여 메워야 할 대상이지만, 그 문헌 역시 여러 갈래로 읽힐 수 있다. 결국 어떤 연주도 해석을 피할 수 없으며, 차이는 해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해석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진정성을 연주가 지닌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특정한 기준에 대한 관계로 볼 때 더 잘 이해된다. 같은 연주가 소리의 기준에서는 진정하면서 의도의 기준에서는 진정하지 않을 수 있고, 청중은 어떤 기준을 앞세우느냐에 따라 같은 연주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진정성 논쟁이 끝나지 않는 것은 어느 한쪽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 다른 물음에 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1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역사적 연주 운동은 작곡 당시의 악기와 연주 관습을 되살리는 것을 연주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았다.
- ② 타루스킨은 역사적 연주가 현대적 취향을 반영한다는 점 때문에 그 연주의 가치를 부정하였다.
- ③ 키비에 따르면, 한 연주가 의도의 기준과 소리의 기준에서 서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④ 타루스킨은 역사적 연주가 동시대 청중에게 생생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를 그 연주의 현대적 성격에서 찾았다.
- ⑤ 악보에 지시되지 않은 요소를 메우는 일은 역사적 연주를 지향하는 연주자에게도 요구된다.

12. 키비와 타루스킨의 견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사람은 모두, 연주가 과거의 기준에 맞다는 사실만으로

는 그 연주의 가치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 ② 키비는 개인적 진정성이 다른 진정성들과 함께 충족될 때에 한하여 추구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
- ③ 타루스킨은 역사적 연주가 과거의 소리를 재현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연주자의 해석을 배제했다고 본다.
- ④ 타루스킨과 달리 키비는, 악보에 지시되지 않은 요소를 연주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⑤ 타루스킨은 역사적 연주가 소리의 진정성은 확보했지만 의도의 진정성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본다.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피아니스트 A는 바흐의 건반 작품을 현대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바흐 시대의 장식음 처리 규칙을 다룬 당대 문헌을 연구해 그 규칙을 따랐다. 다만 A는 ‘바흐가 더 풍부한 음량과 긴 지속음을 낼 수 있는 악기를 알았다면 그것을 택했으리라’고 본 한 연구자의 해석에 동의하여, 페달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음반 해설지는 이 연주를 ‘시대 고증에 충실한, 진정한 바흐’라고 소개했다. 한편 평론가 B는 “A의 연주는 문헌 연구의 성과를 보여 주지만, 그 성과가 피아노의 음색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라고 평했다.

- ① A가 당대 문헌의 장식음 처리 규칙을 따른 것은, 키비가 말한 관행의 진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겠군.
- ② A가 페달을 사용한 것은, 소리의 진정성을 일부 낮추더라도 의도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타루스킨의 관점에서는, 해설지가 A의 연주를 ‘시대 고증에 충실한, 진정한 바흐’라고 소개한 것을 현대적 선택을 역사적 권위로 포장하는 태도라고 비판할 수 있겠군.
- ④ 해설지와 B가 A의 연주를 달리 평가한 것은, 서로 다른 진정성의 기준을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B는 A의 연주가 관행의 진정성과 소리의 진정성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이겠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는 빛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수 많은 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각 화소의 중심에는 포토다이오드가 있는데, 리셋되어 역방향 전압이 걸린 상태의 포토다이오드에 빛 알갱이인 광자가 들어오면 전자가 생겨나 축적된다. 이때 축적되는 전자의 수는 들어온 광자의 수에 양자 효율, 곧 광자 하나가 전자로 바뀌는 비율을 곱한 값과 같다. 화소의 면적이 넓으면 같은 빛 아래에서도 더 많은 광자를 받으므로, 신호에 섞인 무작위적 요동이 신호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축적된 전자는 그대로는 읽을 수 없어서 전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 변환은 부유 확산 영역이라 불리는 작은 저장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부유 확산 영역은 포토다이오드와의 사이에 있

는 전송 게이트가 열린 상태에서는 포토다이오드에 연결되어 전자를 넘겨받고, 닫힌 상태에서는 고립되어 넘겨받은 전자에 해당하는 전압을 유지한다. 이렇게 생긴 전압의 크기는 들어온 전자의 수를 이 영역의 전기 용량으로 나눈 값에 비례한다.

[변환 이득] 은 전자 한 개가 만들어 내는 전압을 말하는데, 부유 확산 영역의 전기 용량을 작게 설계하면 변환 이득이 커져 적은 빛에서도 뚜렷한 신호를 얻을 수 있다.

㉠ CCD 센서에서는 노출이 끝나면 각 화소의 전자가 전압으로 바뀌지 않은 채 이웃 화소로 차례차례 넘겨진다. 열을 따라 옮겨진 전자 묶음은 센서 가장자리의 수평 전송 통로에 이르고, 다시 그 통로를 따라 하나씩 출력단으로 보내진다. 출력단에는 부유 확산 영역과 증폭기가 하나씩만 있어서, 모든 화소의 전자는 같은 영역에서 같은 변환 이득으로 전압이 되고 같은 증폭기를 거친다. 한 화소에서 온 전압이 증폭기를 통과하고 나면 그 영역은 다시 비워진 뒤 다음 전자 묶음을 받아들인다.

㉡ CMOS 센서에서는 화소마다 부유 확산 영역과 증폭기가 들어 있다. 전자는 화소 안에서 바로 전압으로 바뀌어 증폭되고, 행 단위로 선택되어 열마다 배치된 회로를 거쳐 디지털 값이 된다. 두 센서는 빛을 전자로 바꾸고, 전자를 전압으로 바꾸어 증폭한 뒤, 디지털 값으로 만드는 단계를 똑같이 거치지만, 전자를 전압으로 바꾸는 장소가 다르다. CMOS 센서는 행을 차례로 읽어 내므로 각 행의 노출도 차례로 시작되고 끝나게 하는 방식을 흔히 쓴다. 한 행에서 전자가 부유 확산 영역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곧 그 행의 노출이 끝나는 순간이며, 그 행의 값을 읽어 낼 수 있게 되는 순간이다. 가령 1,000개의 행을 10 마이크로초 간격으로 읽는 센서라면 첫 행과 마지막 행의 노출 종료 시점은 약 10밀리초 차이가 나며, 그 사이 렌즈 앞을 가로지른 막대는 사진에서 비스듬히 기울어진다. 모든 행의 전자를 한꺼번에 부유 확산 영역으로 넘긴 뒤 차례로 읽는 방식도 있는데, 이 경우 먼저 읽히는 행과 나중에 읽히는 행 사이에서 전자는 이미 포토다이오드를 떠났지만 아직 디지털 값이 되지 않은 채 머문다.

화소 안에 회로가 들어가면 그만큼 빛을 받는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지만, 미세 공정의 발달과 화소 위에 얹은 작은 렌즈로 이를 상당 부분 보완하게 되었다. 또한 CMOS 센서는 리셋 직후의 전압을 먼저 읽고 전자를 넘겨받은 뒤의 전압을 다시 읽어 그 차이를 신호로 삼는데, 이는 리셋 때마다 달라지는 전압의 영향을 지우는 데 유효하다. 그러나 화소마다 증폭기가 따로 있다는 것은 그 증폭기들이 서로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14.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양자 효율이 같다면, 포토다이오드에 축적되는 전자의 수는 들어온 광자의 수에 비례한다.
- ② 화소의 면적을 넓히면 받는 광자가 많아져 신호에 섞인 무작위적 요동의 상대적 크기가 줄어든다.
- ③ CCD 센서에서 화소의 전자는 출력단에 이르기 전까지 전압으로 바뀌지 않는다.
- ④ CMOS 센서에서 각 행의 값은 그 행의 노출이 끝나기 전부

터 읽어 낼 수 있다.

- ⑤ CMOS 센서는 리셋 직후의 전압과 전자를 넘겨받은 뒤의 전압의 차이를 신호로 삼는다.

15. [변환 이득]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변환 이득이 크면 같은 수의 광자에서 더 많은 전자가 생겨난다.
- ② 전송 게이트가 열린 상태에서는 부유 확산 영역이 고립되어 전압을 유지하므로 변환 이득이 최대가 된다.
- ③ 부유 확산 영역의 전기 용량을 크게 설계하면, 같은 수의 전자가 들어와도 만들어지는 전압은 작아진다.
- ④ CCD 센서에서는 화소마다 변환 이득이 달라, 같은 빛을 받아도 화소 사이에 전압 차이가 생긴다.
- ⑤ 변환 이득을 키우면 화소가 받는 광자가 많아져 신호에 섞인 요동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16. ㉠과 ㉡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출력단에 있는 부유 확산 영역은 센서 전체를 한 번 읽어 내는 동안 여러 화소의 전자를 차례로 넘겨받는다.
- ② ㉠은 ㉡과 달리 부유 확산 영역을 거치지 않고 전자를 전압으로 바꾼다.
- ③ ㉡은 ㉠과 달리 빛을 전자로 바꾸는 단계를 화소 밖에서 수행한다.
- ④ ㉠에서 화소의 회로가 빛을 받는 면적을 줄이는 문제는 화소에 든 증폭기의 수를 줄임으로써 해결되었다.
- ⑤ ㉠과 ㉡은 모두 행 단위로 노출이 차례로 끝나므로, 빠르게 움직이는 막대가 기울어져 찍힌다.

17.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다음은 행을 차례로 노출하고 읽는 방식의 CMOS 센서 X, Y를 같은 조명 아래에서 비교한 것이다.

구분	X	Y
화소 하나에 들어오는 광자 수	2,000개	1,500개
양자 효율	60%	80%
부유 확산 영역의 전기 용량	2.0 fF	1.5 fF
전체 화소 수	2,400만 개	4,800만 개
행의 수 / 행 판독 간격	4,000행 / 8μs	6,000행 / 5μs

(단, fF는 전기 용량의 단위이고, 제시된 것 외의 조건은 같다.)

- ① 한 화소에 축적되는 전자의 수는 X와 Y가 같다.
- ② 한 화소의 부유 확산 영역에 생기는 전압은 Y가 X보다 크다.
- ③ X의 부유 확산 영역의 전기 용량을 Y와 같게 바꾸면, X의 한 화소에 생기는 전압은 Y와 같아진다.
- ④ 빠르게 지나가는 막대를 찍으면, 첫 행과 마지막 행의 노출 종료 시점 차이가 더 큰 X에서 막대가 더 크게 기울어진다.